

#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도서 출판

玄源福

과학저널리스트 · 과학기술단지 대변인

우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1년을 바로 12년 앞두고 있다. 이 새로운 세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 언제나 앞날을 미리 가보고 싶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요즘 세계는 21세기 예측물이 붐을 이루고 있다. 10년 남짓한 앞날은 오늘의 연장선 위에서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고 특히 과학기술의 경우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그 적중도가 높다. 과학기술이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대개 12년 안팎의 세월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할 때 21세기초에 선보일 신제품은 오늘날 실험실에서 개발에 착수하고 있거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에 따르면 21세기초에는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을 구현하고 국민총생산고 규모로는 세계 15위의 경제주요국과 수출입규모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어 마침내 선진국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에 부풀 새로운 세기맛이를 위해 우리가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은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문화적인 기반이다. 국민총생산고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국민총생산고로 치면 세계정상급에 오른 국가들 중에도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 없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의 당면문제는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그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과학을 하나의 문화로서 어떻게 우리의 국민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열쇠는 과학을 대중화하는데 있다.

오늘의 과학의 대중화는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문명시대의 능동적인 동참자로서의 삶을 슬기롭게 영위하기 위한 정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요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현대를 사는 사람은 과학과 국가, 과학과 사회, 과학과 문화, 과학과 종교, 과학과 역사, 과학과 철학을 포함하여 현대문명의 큰 줄기를 이루는 과학과 모든 인간활동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의 대중화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과학문화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학도서의 출판과 보급에는 국가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쏟는 노력과 병행하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오늘의 과학도서출판현황은 최근 과학기술계의 눈부신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지난 87년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이래 너털지 못한 과학도서출판관계로서는 외국신간의 번역판을 출간할 의욕이 두드러지게 위축되는 추세에 있어 이런 단절현상이 계속되면 일반국민들은 외국의 과학기술관계의 신간과는 영영 결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과학도서출판이 어려운 배경에는 여러가지 사연이 있겠으나 우선 우수한 필자나 역자가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여 좋은 과학도서를 출판하고 출판된 과학서적은 예컨대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통해 기본부수는 소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준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차츰차츰 풀리지 않을까 한다.

과학도서의 경우는 특히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양성이나 확보도 시급한 일이다. 또 과학기술관계의 외국서적을 번역하거나 이용할 때 외국출판사나 저작권자와의 교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제도도 있어야겠다. 또 과학기술의 혜택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문화사업자금의 일부로 과학출판금고 같은 것을 만들어 양서출판을 지원함으로써 과학대중화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는 투자효과를 거둬 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과학도서출판제도 종래와 같이 과학지식위주의 출판에만 주력하지 말고 좀더 시야를 넓혀 과학과 정치, 과학과 경제, 과학과 사회를 포함하여 새로운 영역의 출판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면 새로운 지평을 찾게 될 것이다. 과학문명시대를 사는 현대인은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는 과학이 여러 분야의 인간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해 누구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지인물	2 「교육일기」퍼낸 아동문학가 李五德씨
세미나 중계	4 과학저술과 출판 과학저술의 사회적 기능/劉載天 과학저술과 매체/金學銖
6	북한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문학에서의 근대문학 연구/權寧珉 북한의 창작문학/任軒永
8	북한의 한국사 서술동향 북한의 고대사 연구/朴性鳳 북한의 근대사 연구/金興洙
10	역사에서의 혁명 프랑스혁명, 부르주아혁명인가 민중혁명인가/閔錫泓 '辛亥革命'은 혁명인가/閔斗基
서평	12 李龍範 「韓滿交流史研究」/池培善 서중석 「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 연구」/徐紘一
13	오도널 외 「남부유럽과 민주화」/金永明 金光堯 「獨逸戲曲史」/李相日
14	金聖坤 「脫모더니즘時代의 美國文學」/權澤英 김병걸 「민중문화와 민족현실」/金鍾會
독서단상	15 책에서 시작되어 책에서 끝나는 삶/호영송
그때 그 시절	16 「學園」시절 이야기/崔德教
화제의 책	17 戰稱속에 핀 '소년시인'들의 抒情
인터뷰	18 「한국의 中層文化」퍼낸 김선호·김정환 교수夫婦
출판화제	19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선 철학사건 20 수필의 장르분화, 테마에세이 붐 21 죽음을 넘어 퍼져나가는 '문학적 향기'/남진우
지금독서중	22 R.메스너의 「검은 고독 흰 고독」— 회사원 崔正基씨 김형국의 「도시시대의 한국문화」— 지점도공예가 金昌玉씨 23 아이즈마토프의 「처형대」— 회사원 李興福씨
지금번역중	23 키케로의 「의무론」— 서울대 許勝一씨
컬러화보	24 연세대 金東吉 교수의 書架
교양논단	26 認知科學이란 무엇인가/李政模
작품구상	27 장편 「背叛」/유순하
세계의 추천도서	28 美國의 이미지와 '미국 알기'/李重漢
세계의 출판	30 인도현대사의 큰별 네루傳記 출간·외
이달의 청소년도서	32 청소년이 읽을만한 책 34 신간안내 42 200자 안내/화제의 책 44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데스크 칼럼	48 사이비 '과학서적의 범람'/송 상용 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